



# 보청기 국가지원 받아 구매 가능

청력이 안 좋다면 최신형 보청기 한 달 무료체험 + 최대 131만원 보청기

hear.com

자세히 알아!

솔로이코노미	뉴스	나혼자산다	MONEY	리서치센터	1리터 웹진	검색할기사를 입력하세요 🔍
편의점   식품/유통   가전/IT/가구   라이프   자동차						🖵 구독신청   🚍 전체기사보기   🛮 모바일웹

HOME > 뉴스 > 경제

# 늘어나는 '나홀로족'에 1만원 미만 배달음식 수요 급증

○ 김태균 기자 | ② 승인 2015.07.13 10.56 | ♀ 댓글 0









# 나홀로족이라면?

올해 서울의 일명 '나홀로족'으로 불리는 1~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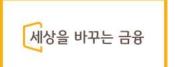
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1~2인 가구 비중은 2000년 33.3%(104만 가구)에서 올해 현재 51.7%(188만 가구)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다. 특히 1인가구 비중이 27%로 2인가구 24.7%보다 높았다. 또 20년 뒤인 2035년에는 63.2%(260만 가구)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나홀로족의 증가는 식품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.

쉽고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배달음식이나 가정간편식(HMR, Home Meal Replacement), 또는 편의점 식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.

### 인기기사

- 1 [혼족취미] 혼자보기 좋은 넷플릭스 드라마 ...
- 2 [그것이 궁금] 삼성전자 '갤럭시Z폴드2' vs L...
- 3 [이벤트] 한미헬스케어, 선착순 1000명에 종...
- 4 [이 앱 어때?] 내귀의 꿀보이스, 오디오 플랫...
- 5 [그것이 궁금] 빼빼로데이, 롯데빼빼로 콜라...
- 6 [솔직체험기] 카카오 모바일 교통카드, 사용... 7 코로나19로 달라진 여행 풍경..2020년 주요 ...
- 8 CGV, '4DX로 즐기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' ...
- 9 쎄시봉 위로 콘서트, 코로나19 힐링 관람텐...
- 10 [청년1인가구in주거] 1인가구·동거가구·반려...



### 최신기사

[금융단신] 기업은행·농협은행·하나은행 夕

[솔직체험기] 카카오 모바일 교통카드, 사용법 부터 세부기능까지!



## 어도비 11.11 세일

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
그중에서도 스마트기기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을 해 온 배달앱 시장 역시 1인 가구, 맞벌이 가 구의 증가와 함께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.

지난 5월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실시한 배달음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, 1인 가구의 61%가 배달앱 사용 경험이 있고, 1인 가구일수록 요일에 상관없이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고객들이 많 은것으로 나타났다.

또 배달앱 업체인 배달통에 따르면 올 1~6월 기준 전체주문 중 1인 메뉴 주문비율은 올해 1~6 월 기준 22%를 차지했다. 이 수치는 1만원 미만과 1만원~1만5000원 이하의 주문율을 집계한 결과다.

특히 1만원 미만 메뉴는 지난 1~6월까지 집계 결과, 지난해 대비 주문 건수는 1664% 증가, 주 문율로는 20배가 증가했다.

이는 자주 이용되는 주문 메뉴에서도 드러난다. 배달이 주를 이루는 중식이 지난해 1만원 미 만 주문 중 94%를 차지했다. 중식은 짜장면, 짬봉 등 한그릇도 배달이 가능해 더욱 높은 주문 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.

(데일리팝=김태균 기자)

저작권자 ©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태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







[솔직체험기] 2020배민 떡볶이 마스터즈, 자칭



DAILY POP 신문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6 MeMo빌딩 7층 | 대표전화 : 모든 문의는 데스크 직통 02-3775-4016 | 청소년보호책임자 : 오정희 명칭 : (주)와이드필드 | 제호 : 데일리팝 | 등록번호(등록일) : 서울 자 00498(2015.01.15) · 강남 라 00749(2011.04.27) | 발행일 : 2011-04-27 | 발행인 : 정단비 | 편집인 : 정단비 데일리팝 모든 콘텐츠(영상,기사, 사진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, 무단 전재와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

Copyright © 2020 데일리팝. All rights reserved. mail to dailypop@dailypop.kr

POWERED BY NICE